

연중12주일 감사성찬례

전례곡 C곡 집전 구균하 신부

시작예식 · 말씀의 전례

입 당 성 가	성 가	552장
죄 의 고 백	기도서	244쪽
기 원 송 가영 광 송.....	성 가	81장
1 독 서사무상 17:32-49.....	말 은 이	
2 독 서2고린 6:1-13.....	말 은 이	
성 시시편 9편.....	다 함 개	
복 음마르 4:35-41.....	말 은 이	
설 교고요하고 잠잠해져라.....	사제 천용욱	
사 도 신 경	다 함 개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말 은 이	

성찬의 전례 · 파송예식

봉 헌 성 가G.F.S 회.....	성 가	450장
성 찬 기 도제2양식.....	기도서	260쪽
성 체 성 가	성 가	602장
축 복 기 도	집 전 사 제	
파 송 성 가	성 가	488장

< 감사성찬례 및 주일봉사자 >

구 분	이번 주일(연중12주일 6월 20일)			다음 주일(연중13주일 6월 27일)		
	9시	11시	2시	9시	11시	2시
집 전	천용욱신부	구균하신부	천용욱신부	구균하신부	천용욱신부	구균하신부
설 교	구균하신부	천용욱신부	천용욱신부	천용욱신부	구균하신부	구균하신부
독 서	정상임	김에중	박남미	윤지훈	이종한	정정훈
	윤지훈	이성빈	김민경	김태영	신환중	정지원
교회와세상을 위한 기도	김태영	한재업	천윤우	신명식	김종희	이자영
십 자 가	윤용환	이용해	-	박해웅	차기성	-
청 소	안드레회(2조) 6월26일 서남훈 윤선구 박영수 유권열 유인환			안드레회(3조) 7월3일 김삼홍 차기성 전병도 김중희 김중현		

< 다음주일 6월 27일 연중13주일(나해) >

독서/복음	사무하1:1, 17-27 / 2고린 8:7-15 / 시편 130 / 마르 5:21-43
설 교	하느님의 선물, 믿음
성 가	입당 251장 봉헌 412장 영성체 442장 파송 461장

다음주일 암송구절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마르 5:34)

시편 9편

- 주여, 억울한 자의 요새 | 되시고
 || 곤궁할 때 몸 담을 | 성채되소서.
 ○ 주여, 당신을 찾는 자를 아니 버리시기에
 || 당신 이름 받드는 자 그 품에 | 안깎니이다.
 ○ 시온에 계시는 주님께 찬미 | 하여라
 || 그 하신 일들 만민에게 | 모두알려라.
 ○ 주께서 공정한 재판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
 || 악한 자는 자기가 한 일로 | 걸려들리라.
 ○ 하느님을 저버린 저 만주들, 주님의 나라로 물러가거라.
 || 악인들아, 너희도 | 물러가-리라.
 ○ 가난한 사람, 아주 잊혀지지 | 아니하고
 || 억눌린 자의 희망, 영영 헛되지 | 아니하리라.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 성령께
 || 처음과 | 같이 지금도 ○ 기 | 라-고 || 영 | 원히 아-멘

기도의 향

- + 교회를 위하여
 ○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도록
 ○ 아프고 약한 이웃을 돌보도록
 ○ 성령 안에서 더불어 살도록
 ○ 배우고 익힘으로 예수님을 닮도록
- + 가정을 위하여
 ○ 모든 가정의 나자렛 성가정을 본받도록
- +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 코로나 19 극복을 위하여
 ○ 남북간의 평화를 위하여
 ○ 가난하고 고령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 + 환 자
 ○ 한부순 손정자 박길자 강보경 권영달 김경옥
 ○ 이명길 이순환 윤길자 이현숙 채옥순 최종주
 ○ 신희숙 신정자 고 금 김영화 곡순연 김용학
- + 임산부
 ○ 강서민 정새별
- + 군복무
 ○ 전호준 전필중 김건우 조용현 이준형 송준석
- + 유 학
 ○ 이재성(독일)
- + 장기출장
 ○ 박지혁(미국) 김슬기(미국) 이재동 윤상기(미국)
 ○ 서한열(캐나다)
- + 별세
 ○ 하도목

교회소식

<주일 감사성찬례 참여를 위한 지침>

- 1) 입장 전에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 유무를 검사하고, 창석자 명단을 꼼꼼히 적습니다.
- 2)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손소독제로 손을 씻습니다.
- 3) 표시된 자리에 앉아서 성찬례를 드립니다.
- 4) 영성체는 성체만 영하고 보혈은 영하지 않습니다.
- 5) 성찬례 전과 후에 교회 안팎을 소독합니다.
- 6) 애찬과 단체별 모임은 하지 않습니다.

◆ 방역소독을 준수하여 주일감사성찬례는 세 번에 나눠 봉헌합니다(오전9시/오전11시/오후2시). 성전 안에서는 표 시된 좌석만 이용해 주십시오.

◆ ‘365 성서통독운동’

[365 성서통독 운동]에 적극 동참해주시요. 매일 전달되는 문자 와 카톡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침기도 안내

매일 오전5시50분에 드리는 아침기도에 참석해 주십시오. 기도 후 ‘오늘의 말씀’, ‘새길 말씀’, ‘묵상 길잡이’와 ‘기 도 의향’을 문자와 카톡으로 보내 드립니다.

◆ 강남교무구 하남교회 지원

교회내부에 설치된 복층구조물에 대한 하남시청의 철거명령 으로 비용(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교무구는 하남교회를 돕기 위해 교무구 기금에서 10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교무 구 각 교회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교우님들의 정성을 모아 주십시오.

◆ 맥추감사주일 안내

2021년 7월4일(주일)을 맥추감사주일로 봉헌합니다. 코로나 의 어려움 중에도 한해의 절반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베풀 어주신 은총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기도와 정성을 주님께 봉 헌합니다.

◆ 십자가 이동에 관한 의견 청취

지난 주에 광고했던 바와 같이 십자가 이동에 관한 교우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십자가 이동에 관한 의견이 있으 신 분들은 관할사제나 보좌사제, 교회위원들에게 말씀해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단 꽃 봉헌 안내

제단 꽃봉헌 받습니다. 사무실 앞에 마련된 신청표의 원하 시는 날짜에 봉헌하시는 분의 성함과 내용을 쓰시고 봉헌 해 주십시오.

▶ 활동단체 소식

+ 어머니회 물품 판매

-다시마 1kg(1박스)	1만7천원	-미역 1kg(1박스)	2만8천원
-서리태 1kg	1만5천원	-보리쌀 2kg	1만2천원
-참기름 1병	1만원	-들기름 1병	9천원
-엿기름 600g	4천원	-멸치 1박스	1만7천원
-매실액기스 2L	1만원	-된 장 2kg	1만3천원
-순창매실고추장 2kg	1만5천원		

+ 교회학교 교사회

일시 2021년 6월 20일(오늘) 2시 성찬례 후
 장소 2층 성전

+ 안드레회 월례회

일시 2021년 6월 27일(다음주) 11시 성찬례 후
 장소 2층 성전

성전에서 회의를 한 후 쌍지공원 벤치 도색과 정원수 가지치기 를 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교우 소식

+ 꽃봉헌 박해웅·이순경(결혼기념)

+ 생일을 축하합니다!

박건호 박건희(24일) 이윤나 허의진(25일)



함께 읽는 365 성서통독

2020년 11월 29일(대림1주일) 부터
 2021년 11월 21일(영광1주일)까지

“한 말씀만 하소서. 우리가 곧 나으리이다.”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함께 읽고, 함께 익히고, 함께 살아가기



함께 읽는 365 성서통독

“한 말씀만 하소서. 우리가 곧 나으리이다.”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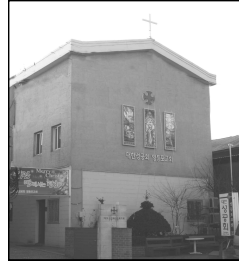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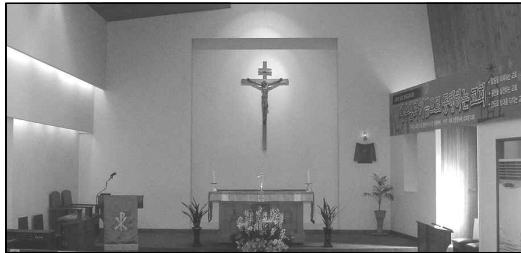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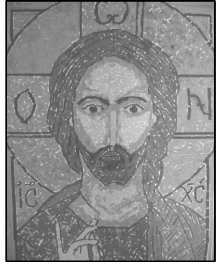
함께 읽고, 함께 익히고, 함께 살아가기

2020. 11. 29.(대림1주일) - 2021. 11. 21.(왕이신 그리스도주일)

구 분	참 석	봉 헌	금 액	월정집임조	고창현 김경숙 김중희 송미경 서명식 신환중 심순덕 유윤근 유인환 유희주 윤길자 윤선구 윤영옥 전유성 조진성 차기성 최효은 추형두 함운순
감사성찬례		월정집임조	1,555,000		
주일	101	주정현금	340,000	주정현금	김경아 김경찬 김삼홍 김요한 박남미 선병순 송미경 신희숙 심동현 윤수환 윤영옥 윤영자 윤옥량 이경희 이은이 이정숙 이종한 정병목 정성임 주창남 주창순 차기성 차기영 한부순 한에지
아침기도	24	교회학교	11,000		
		감사헌금	560,000	감사헌금	고창현(생일5만) 박건호 박건희(생일5만) 송남해(생일1만) 신승지(건경5만) 신정자(이기용)(건경10만) 이난해(떡봉헌12만) 이순경(꽃봉헌8만) 장기현(생일5만) 정은숙(생일5만)
		주일헌금	2,000		
		성소계발		특별헌금	윤옥량(예수사랑1만/나눔의집1만)
합 계	125	합 계	2,468,000	성소계발	

<기간 6.7-6.13>

<헌금기간 2021.6.7-6.13>



성 공 회

영 등 포 교 회

성공회(聖公會 Holy catholic church)는 하나이요, 거룩하고(聖), 보편되며(公), 사도로부터 이어온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會)입니다. 성공회는 믿음의 기초를 성서에 두고,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으며,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전통과 역사를 지닌 교회입니다. 영국교회(Church of England)의 선교로 1890년에 설립한 대한성공회는 13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성공회공동체(Anglican Communion)의 신자는 164개 국가에 약 1억 명입니다.

성공회 영등포교회는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강남교무구에 소속되어 있으며 1966년 노동자를 위한 교회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변 환경의 변화와 함께 지역교회로서 그 사명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성공회의 선교정신은

- 첫째,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 둘째, 새신자를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고 양육합니다.
- 셋째, 사랑과 섬김으로 이웃의 필요에 응답합니다.
- 넷째, 불의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 다섯째, 창조질서를 보존하며, 지구생명의 회복과 유지에 헌신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래의 다섯 가지를 지향합니다.

1.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2.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
3. 아프고 약한 이웃을 내 몸처럼 보살피고 돌보는 교회
4. 성령의 도움으로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
5.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주 일 및 주 간 모 임

- *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주일 및 주간의 모든 모임은 없습니다.
- * 주일 감사성찬례는 오전 9시, 11시, 오후 2시에 드립니다.
- * 11시 감사성찬례는 유튜브로 생중계합니다.
- 대한성공회 영등포교회 채널

찾아오시는 길



대한성공회 영등포교회 크리스토퍼

2021 교구표어 “친교의 신앙으로 선교하는 제자공동체”
교회표어 “하느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은사공동체”

‘고요하고 잠잠해지려’

갈릴리호수는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 중앙에 있는 아주 큰 호수입니다. 그 크기가 남북으로는 21Km에 달하고 동서로는 11km나 됩니다. 우리의 강화도보다 조금 작은 크기이지요. 예수님이 나고 자란 곳이 ‘나자렛’이라고 하는데 그곳도 이 호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지요.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후에 곧바로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곳도 주로 갈릴리호수를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던 마을들이었으며 첫 번째로 부름을 받은 제자들인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도 바로 이 갈릴리호수에서 어부로 살던 사람들이기도 했지요.

오늘의 복음말씀도 예수님이 갈릴리호숫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다가 저녁이 되어 배를 타고 호수의 다른 편으로 가던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저어 호수를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더니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되었고 배는 그만 곧 가라앉을 것만 같은 위험천만한 상황이 되었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뱃고물을 베게 삼아 세상모르게 잠만 자고 있었다는 것이요, 제자들은 그렇게 그냥 물에 빠져 죽을 것만 같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지요. 그래서 자고 있던 예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돌보시지 않습니까?”(마르4:38)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하여 “고요하고 잠잠해지려!” 하고 호령하자 바람은 그치고 바다는 아주 잔잔해졌다.(마르4:39) 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왜 그렇게들 겁이 많으나?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마르4:40) 고 책망하셨다고 하고요.

갈릴리에 살던 사람들에게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는 일은 한 번쯤은 겪어 보았을 일일 겁니다. 고기잡이 어부들에게는 그야말로 일상생활이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널 때에는 무엇보다도 날씨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잔잔한 바다에 순풍을 만나 평안한 항해가 되기를 바라지만 늘 고른 날씨일 수만은 없는 것이어서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역풍을 만나 항해에 큰 어려움을 겪거나 심지어는 위험에 빠져 목숨을 잃는 일이 생기기도 했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는 일을 인생에 빗대어 얘기하기도 했지요. ‘삶의 길이란 마치 배를 저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는 것과 같다’는 식으로 말이지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고요하고 잠잠해지라고 호령하셨던 것은 제자들의 마음에 불던 세상에 대한 두려움의 바람을 향한 것이고 끊임없이 밀려오는 스스로와 서로에 대한 불신과 의심의 파도를 향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사람은 바깥에서 물려오는 거친 세파에 빠져 죽는 것이 아니라 늘 스스로 마음속에서 일렁이고 있는 두려움과 불신의 풍파에 빠져 죽는 것이라고요. +

서울교구장 이경호 주교 관할사제 천용옥 010-4123-7357 보좌사제 구균하 010-3460-7382 신자회장 김중희 010-5472-0529 사제회장 차기성 010-4339-5233 보혈조력 박해웅 신환중 윤영옥 윤용환 이용혜 이종한 차기성	원로위원 서세룡 유호에 송갑호 추형두 이충용 이용혜 박해웅 윤용환 교회위원 구정에 변금숙 서남철 신환중 이성식 이평환 조진성 추경민 한재업 성가대 지휘 김민숙 찬양 한재업 반주 고아랑 심민경 제단꽃꽂이 이경희 이난희	(07299)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430 전 화 2671-6290 2633-8877(팩스겸용) 홈페이지 www.stchristopher.or.kr e-mail ydp@anglican.kr
기업은행 083-082654-04-015 예금주 대한성공회 영등포교회		